

SK디앤디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뛰어든 SK 디앤디는 올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동반 육성한다. 올해는 700MWh를 구축해 업계 선두 자리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SK디앤디(대표 함스테판윤성)는 상업용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SK가스의 자회사다. 국내 부동산 개발기업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

신재생·ESS 주축, 에너지 산업 '본격화'

최근에는 태양광, 풍력발전과 ESS를 주축으로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남원·신흥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전남 영암 F1경기장 태양광발전소, 대구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소 등의 태양광 사업과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 등의 풍력발전 사업을 운영 중이다.

SK디앤디의 장점은 투자개발과 EPC(설계·구매·시공)까지 사업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총 30MW 규모에 달하는 가시리 풍력발전소는 대형 사업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또 2016년 12월에는 울진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인 울진풍력 주식회사와 1600억원 규모 EPC와 370억원 규

모 O&M(운영·정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재생사업과 함께 올해는 ESS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60MWh 규모 ESS를 선제적으로 설치했고, 올해는 최대 700MWh까지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성산업가스 4개 사업장에 총 110MWh 용량의 ESS 통합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대성산업가스 대전공장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구미, 여천, 울산공장에 순차적으로 ESS를 구축할 방침이다. SK디앤디가 재원조달부터 설치, 운영, 유지보수까지 ESS 사업 전반을 책임진다. 대신 ESS를 통해 절감한 전기요금 중 일부를 SK디앤디가 가

지낸다. 대성산업가스는 일체의 투자 및 운영 부담 없이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돼 손익구조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S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ESS용 PMS(전력관리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리드위즈와 손을 잡았다. 그리드위즈의 PMS는 고객사의 실시간 전력사용 패턴 분석 및 부하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SK디앤디는 신재생에너지, ESS 사업에 이어 개인 간 에너지 거래, 가상발전소 등 전력 플랫폼 기업으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위대용 기자 wee@



SK디앤디가 대전에 소재한 대성산업가스에 구축한 ESS.

씨미시스코

씨미시스코(대표 이순중)는 지난해 말 국토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D2를 앞세워 초소형전기차 시장 선점에 돌입한다. 차량 출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달성한 만큼 사전 예약구매자와 지자체, 공단 등에 차량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씨미시스코는 2000년에 설립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전문 제조사로, 201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차량 개발, 판매에 나섰다. 지난해 5월에는 세종시 미래산업단지에서 약 15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양산라인을 준공했다.

초소형 전기차 인증완료, 올해부터 판매 시작

주력제품은 완벽한 자동차의 형태로 모든 부품을 승용차 기준으로 설계한 2인승 전기차 D2다. 초소형 전기차는 낭만방 설비가 없거나, 편의사양이 없지만 D2는 낭만방 설비는 물론 넓은 트렁크까지 확보하고 있다.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도 걱정 없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외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밀폐형 3도어를 채택했다. 1회 충전으로 약 150km(최종 인증시 변동가능)를 주행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인 한강사업단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세어링 업체와 렌터카 업체는 물론, 근거리 이동 목적이나 세컨드 카 등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탓에 실제 판매로는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모든 인증을 끝마쳤다. 씨미시스코는 지난 12월 18일 인증 통과를 기념하는 리셉션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판매 사업에 착수했다.

이미 D2는 대형 유통점 이마트



와 판매 계약을 맺고, 이마트 하나점, 스타필드 고양점, 용인 죽전점, 광주 상무점, 부산 문현점, 서울 영등포점, 대구 경산점에서 계약을 받고 있다. 전국 단위로 판매처를 늘려 초소형전기차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씨미시스코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차량 판매는 물론 자동차 종합관리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1500여개에 달하는 정비 네트워

크를 확보한 마스터자동차관리와 정비 업무계약을 체결한 덕분이다.

이순중 씨미시스코 대표는 "D2 인증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머지 않았다"며 "차량 분류, 법규 및 규제 등에 따라 추가 보완해야 할 점도 없는 만큼 빠른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피엠그로우

2011년부터 전기버스 배터리팩 사업을 추진해 온 피엠그로우(대표 박재홍)는 올해부터 전기버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엠그로우는 전기버스 전용 충전 솔루션 'WEBUS'를 바탕으로 지난해 김포시에 전기버스 40대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덕분에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흑자전환 성공, 전기버스·리튬배터리 실적 개선 주도

WEBUS는 전기버스와 충전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운수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해 피엠그로우가 자체 개발했다.

피엠그로우는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를 대비한 이동형 충전기, 설치한 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 관리 시스템, 버스 배터리의 충전전 분석 등도 제공한다. 전기버스 운영사업자가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TOC도 갖춰 충전이력, 운행이력, 정산이력 등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올해는 자일대우버스가 전기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WEBUS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엠그로우는 올해 100대 규모 전기버스 배터리팩을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자일대우, 삼성 SDI, 피엠그로우 3사는 전기버스 공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일대우는 국내외 전기버스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표준형 플러그인 충전방식 전기버스를 개발하고, 배터리, 충전기를 망라하는 전기버스 통합 관리 솔루션은 삼성SDI와 피엠그로우가 담당한다.

전기차에서 쓰고 나온 폐배터리를 재



활용하는 '리튬배터리' 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는 상태를 분석해 ESS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노후한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리튬배터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피엠그로우는 지난해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현대제철에 공급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의 이동형 전기차 충전

기에도 리튬 배터리를 적용했다. 제주 한전본부에는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UPS를 공급했고, 배터리 등급 분류 제

품을 제주 테크노파크에 납품했다. 올해는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중극 등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는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버스 보급을 추진하는만큼 전문 전기버스 배터리 패키징 업체로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그동안 공을 들인 전기버스, 리튬 배터리 등 신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실적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Advertisement for (주)선일일렉콤 (Soneil Electronics Co., Ltd.). The ad features a sunset background with the slogan '밝은 세상을 비추어 주는 믿음직한 기업' (A trustworthy company that illuminates a bright world). It highlights '고객만족 1위 기업, LED 컨버터 세계 초일류 기업' (Customer satisfaction #1 company, LED converter world-class company). The ad lists a team of 10 experts in SMPS and lighting control systems.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website www.ezled.co.kr, phone 054-638-3600, and email sales1@ezled.co.kr.